

양파 신제품 개발·가공제품 사업화 박차

전남농기원, 중만생종 '금송이' 등 자체 개발 보급 산지 유통가격 안정화 기여 농가 소득 증대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양파산업 발전을 위해 신제품 개발과 가공제품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양파 생산량의 약 38%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다. 국내 양파 종자 시장은 약 307억원 규모다. 고추와 무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국산 품종 자급률은 35% 수준에 불과해 많은 양파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기반으로 보급 사업을 추진,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은 일본산과 대등하거나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재배 농가와 종묘 업체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들 품종은 꽃을 피우기 위해 줄기를 길게 뻗는 '추대'와 뿌리가 나뉘지는 '분구' 발생률이 낮아 안정적 재배가 가능하다. 현재 무안과 함평 지역을 중심으로 160ha의 면적에 보급돼 농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품종은 중만생종 '금송이' (2021년), '아리아리랑' (2020년), 중생종 '스리랑' (2020년), 극조생종 '파랑' (2017년) 등이다. 이들 품종은 꽃을 피우기 위해 줄기를 길게 뻗는 '추대'와 뿌리가 나뉘지는 '분구' 발생률이 낮아 안정적 재배가 가능하다. 현재 무안과 함평 지역을 중심으로 160ha의 면적에 보급돼 농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양파의 과잉생산 문제와 유통 가격 불안에 해결하고 최근 소비시장 변화를 반영해 양파 전조와 구근을 활용한 기능성 강화 제품과 세대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개발 제품은 총 7종으로 10~20대를 대상으로 기존 양파 원료 대비 퀴세틴 함량을 19% 증가시킨 구미젤리,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미용 분말과 캐러멜로스 2종, 50대 이상을 위한 천연 양파과당과 셀러드드레싱 등이 있다. 특히 캐러멜로스는 무안 소재 업체에 기술이전해 지난 10월 첫 출시됐다. 이 같은 양파 가공제품 개발과 푸드업사이클링 시장의 확장은 산지 유통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며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행만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양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제품 육성과 가공제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전남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양파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85억 지급

내년부터 단가 인상·지급 상한 면적 확대

전남도는 11일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원,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 75억원을 확정해 총 18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4천여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9천ha로 110억원(국비)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210억원)의 52% 규모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 ha당 지급 단가는 논 35~70만원, 과수 70~140만원, 채소·특작 65~130만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 5년차까지, 무농약 3년차까지 100% 지원한다. 유기농 6년차부터 50%, 무농약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 사업을 추진, 유기농은 6년 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 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지속 인증 농지로서 지급 면적은 약 1만5천ha로 1만3천여농가에 75억원을 지급한다.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은 "각각의 노력으로 7년 만에 2025년부터 친환경직불금이 확대된다"며 "대한민국 유기농 1번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정부 예산 319억원으로 확대 반영되면서 전남은 올해 110억원 대비 73억원 증액된 183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세부 내용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ha당 논은 35만원에서 57만원, 채소는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는 7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현행 5ha에서 30ha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도록..."

광주농협, 취약농업인 대상 겨울나기 물품 지원

농협중앙회 광주농협본부는 11일 "전남 대촌농협에서 관내 취약농업인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지역의 고령·독거농업인 등 취약 농가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물품 전달식에는 이현호 광주농협본부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및 지원 대상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불, 온풍기, 생필품 등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농업인들의 안부를 물으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당부했다. 이환형 조합장은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농업인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호 본부장도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 지원이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기자

실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농업인들의 안부를 물으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당부했다. 이환형 조합장은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농업인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호 본부장도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 지원이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기자



지난 10일 광주 대촌농협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농협본부 제공>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 TRANSPORTATION SAFETY BOAR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